

'숏컷' 미스 프랑스 탄생 ... "전통 무시" 논란



▲ 2024 미스 프랑스로 선발된 이브 질. 사진=linnews.com

짧은 머리(숏컷) 스타일의 참가자가 '미스 프랑스' 로 선발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미스 프랑스 선발 대회에서 20세 여성 이브 질(Eve Gilles)이 우승을 차지했다. 질은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인도양에 위치한 프랑스령 섬 레위니옹 출신이다.

질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미스 프랑스에 뽑혔지만 온라인에선 심사위원들이 전통적인 여성미에 대한 기준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질은 검은색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풍만하지 않은 몸매 때문에 중성적으로 보인다.

과거 우승자들은 대부분 길고 찰랑거리는 머리와 풍만한 몸매를 가진 여성이었다. 103년 대회 역사상 짧은 머리의 여성이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짧은 머리의 여성이 결승에 진출한 적도 없었다.

질은 결승을 앞두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비판이 일자 "나는 더 이상 어린 소녀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말괄량이 아니다." 고 했다.

질은 또 "우리는 긴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들에 익숙하지만, 나는 짧은 머리에 중성적이고 남성적인 외형을 선택했다." 고 했다.

주최 측은 질의 이번 대회 우승이 다양성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미인대회는 1970년대 중반 이후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강요한다는 공격을 받아왔다.

플라이 낚시로 그림 낚는 화가

미국 워싱턴주에서 활동하는 벤 밀러는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플라이 낚시' 화가다. 그는 붓 대신 자신이 고안한 특별한 낚싯대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 낚싯대로 그린 그림을 들여보이는 벤 밀러. 사진=boxzone.com

작업은 강가를 찾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나서 직접 만든 미끼를 물감에 담가 낚싯대 끝에 부착한 후 캔버스에 닿도록 휘두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림을 그릴 수 있긴 한 건지 의심스럽지만 놀랍게도 화폭에는 멋진 풍경화가 고스란히 담긴다.

그가 이렇게 낚싯대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전세계의 강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기 위해서다.

화폭에 다양한 종류의 붓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그는 울, 면, 고무, 플라스틱, 나일론 등의 소재로 만든 수십 가지 다양한 종류의 미끼를 사용한다. 가령 강물의 물결을 묘사하는데 적합한 미끼가 있는가 하면, 자갈이나 강가의 풀 등을 표현하는 미끼도 따로 있다.

때로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진다. 지역 주민들이 그가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오해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을 방문한 경찰들은 밀러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90세에 석사 딱 만학도 할머니 "더 배우고파"



▲ 90세에 석사학위 받은 미니 페인. 사진=University of North Texas

90세 할머니가 석사 학위를 취득해 만학도의 꿈을 이뤘다.

텍사스주에 사는 90세 여성 미니 페인은 최근 노스텍사스대에서 최고령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페인은 1950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년제 대학에 다녔다. 이후 30년간 필사·문서처리사로 직장에서 일하다가 68세에 은퇴했다.

은퇴 후 페인은 다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텍사스여대에 입학해 저널리즘 수업과 경영학 수업을 수강하며 2006년 학사를 취득했다.

페인은 이후 13년간 텍사스 전역의 여러 출판사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다 석사 학위를 얻기 위해 다시 대학에 들어갔다. 그렇게 학제간 연구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노스텍사스대를 졸업했다.

페인은 "항상 단어와 관련한 일을 해왔다. 글쓰기를 좋아했다."며 "항상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었다." 고 말했다. 하지만 페인의 학구열은 아직 식지 않았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배움을 계속해나가고 싶다." 고 덧붙였다.

90세에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례는 처음이다. 2019년 호주 멜버른에서 당시 90세였던 로나 프렌더가스트는 노화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프렌더가스트는 "나이가 너무 많아 못할 정도로 늙은 사람은 없다.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많은 꿈을 꾸게 한다." 고 말했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